



숭대극회



트레버

(Trevor)



◆ 작/John · Bowen ◆ 기획/이원우 ◆ 연출/오정열 ◆ 83.10.7⇒8 ◆ 대학극장

격려사



총장 강신명

知性과 더불어 大学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創造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써 표현된 예술의 하나가 감정과 느낌을 솔직한 동작으로 나타내는 작업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승대극회에서 John Bowen의 TREVOR를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옛 전통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도에 고심하는 승대극회는 「르네상스 승전」을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폭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21년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라는 소인극으로 막을 올린 승대극회의 역할은 순수성을 추구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지표가 되어 왔습니다. 면학과 예술에 힘쓰는 이들에게 나는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한 승대극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작품 소개

존 보우엔(John Bowen)은 극작가이며 소설가이다. 그는 극작가로서의 存在意義를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설가로서도 그 명성이 뛰어지지 않는다.

존 보우엔은 1924년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났다. 비록 異國땅에서 출생은 했지만, 그의 잔뼈가 굳어진 곳은 인도가 아니라 영국이다.

영국에는 그의 친척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밟고 희망에 찬 소년시절을 보냈다. 1940년을 맞이하자 그는 다시 인도로 되돌아갔다. 그때 나이는 17세였다.

제2차 대전이 폭발하자 존 보우엔은 소집되어 인도 군대에 복무하면서 전쟁 체험을 했다. 전쟁 체험이야말로 그의 정신적 사상적인 골격을 형성해 준 要因중 가장 중요한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역사학에 발을 들여놓게끔 한 동기가 됐는지도 모른다.

전쟁은 끝났다. 硝煙은 가셔져 갔다. 존 보우엔은 1947년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포드의 펠로크 대학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했다.

졸업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1학년 영어를 일년 동안 가르쳤다. 그가 교직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 와서는 잡지 편집뿐만 아니라 군색한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방송 협회의 배우로서도 활약했으며 BBC의 발레 비평을 담당하기도 했다.

존 보우엔의 첫번째 회곡은 1964년 발표된 《페텔센 부인, 난당신을 사랑해요》(I Love you, Mrs. Petterson)이다. 그러나 그의 출세작으로는 구약성서에서 얻은 素材 노아의 홍수를 현대화한 《비온 뒤에》(After the Rain)이다. 이 작품은 자기 소설을 보우엔

스스로가 밀도있게 각색한 회곡이다. 《비온 뒤에》가 1966년 험스 테드 극장(Hamstead Theatre Club)에서 공연했을 때 런던의 각 신문들은 한결같이 가장 매혹적인 새로운 연극이라고 절찬했다.

그 선풍적인 인기는 런던에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바다를 건너 브로드웨이에서는 64회의 장기 공연의 기록을 세웠으며 67년도에서 68년도에 걸친 뉴욕 연극 시이즌의 최고 연극으로서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중세 종교극에 근거를 둔 《인간의 타락과 구제》(The Fall and Redemption of Man)와 유리피데스의 《박코스의 여인들》을 현대화한 작품인 《无法의 여인들》(The Disorderly Women)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주목할 만한 역작들이다.

이곳에 수록된 《트레버》(Trevor)는 1968년 2월 28일 런던에서 막을 올린 작품이다. 《트레버》가 널리 읽혀지고 절찬리에 공연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첫째로 재미가 있다. 그 재미는 우리에게 그 신선한 매력과 감동을 푸짐이 안겨준다. 둘째로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笑劇性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소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저속한 테두리를 맴도는 그러한 성질의 소극성이 아니라 차원 높은 谱譯이 작품 底邊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페이소스가 깔려 있다.

작품 《트레버》는 캔징턴에 있는 아파트에 공동으로 세들고 있는 직업여성인 노처녀 제인과 세라한테 그녀들의 양친이 찾아오는 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밀어닥치게 된다. 제인과 세라는 당황한 나머지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거리에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의 악혼자 노릇을 하게 한다. 남자가 제인과 세라 두 여자의 악혼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됨으로써 이 극은 頂點으로 치닫게 되며 끝내는 두 여자의 부모가 그 진상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연출의 변(辨)



극회장 오정열

지나간 밝은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둠이 찾아와 버렸다.
너의 얼굴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
겸허함.
멋진 대화로
나를 감싸 주었다.
영글고
그립고
슬프다던 그 계절은
솜구름처럼 흘러가 버리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또 다시 머물수 없는 한 정점이 찾아왔나 보다.
앞뜰에 아름답게 웃고 있는 이름모를 꽃도
세월에 못 이기겠다는 듯,
흠뻑 가슴을 열어 젖히고 있다.
아!
내가 사랑하고파 지는 꽃이 여기에……
붙잡을 수 없는 바람둥이 세월이 어느 눈먼 소녀처럼.
바라보아야만 하는지……

오정열



트레버 김진희



제인 문경애



세라 박경



로렌스씨 이주완



로렌스부인 정연희



캠프터너 캠프터너 위성신



캠프터너 김미경



허드슨 남효찬

CAST

기획의 변 (辨)

STAP



이원우

오늘이 부서지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오늘을 부러뜨리고 새로운 내일을 맞는 것이다.

‘느거머며 시부아아알’

사막을 건너야 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우리들의 생이 아니던가?
사막을 건너야 되는 우리에게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신기루의 거대한
都市이다.
토끼야!

아침에 불던 바람과

저녁에 부는 바람소리가 다르니 어찌하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전 극회원과 선배님들의 끝없는 지도와 격려속에 무사히 작품을 올리게
되었다.

또 한번 이 작품이 오를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



무대감독 김인보



무대미술 정효민



조연출 박경근



분장 장성수



소품 최시영



조명 김창규



효과 유영록



진행 차세훈



의상 문준호

용승인쇄공사

- 포스터 · 팜프렐 · 옵셀 · 활판 · 공판 · 마스타
- 책복사 · 제본까지 완료
- 명함 · 도장 · 고무인

※ 인쇄문의 출장방문 상담환경

TEL. 794-430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 가 121
<상업은행 용산지점 옆>

공연을
축하 합니다.

-선 배 일 동-



공연연보

回	年 月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희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래옹의 말도" "대비국 노예의 탐"	
	1923년 7 : 7, 21	전민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후" "기계인간" 엘엔청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외자들"	이오네스코 作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와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사유엘·베케트 作
演 劇 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천년목 살화" "담배해독에對해서" "황금단지" (로마극) "고도를 가다리며"	정종화 유병조 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신·오케이시 作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터 作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비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1973년 10 : 25, 26, 27	"방" "기도" (소극장)	H. 펜터 作 F. 아라벨 作
12	1974년 5 : 25, 28, 30	"정희의 사람들" (전 5막) A. 카뮈 作	정종화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품"	W. Arving 作 (신입생환영)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재"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14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망화벌"	Max. Frisch 作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신입생환영)

回	年 月	作 品 名	演 出
15	1976년 6 : 1, 2, 3	"인티봄"	장·클로드·반·이펠리 作
16	1976년 10 : 25, 26, 27, 28	"뱀"	장·클로드·반·이펠리 作
3	1977년 3 : 16, 17, 18	"출 발"	윤대성 作 (신입생환영)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데커 作 백정식 기획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데커 作 방영철 기획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방영철 기획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 作 (신입생환영) 한철 기획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재호 기획
22	1979년 9 : 29, 10 : 2	"초 분"	오대석 作 이성일 기획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박양원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기획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환 기획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 作 이종규 기획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 作 전석근 기획
6	1982년 3 : 24, 25	"임금님끼는 당나귀 키"	김용락 作 최시영 기획
26	1982년 6 : 12, 13	"파리클라" A 카뮈 作	음대웅 기획
27	1982년 10 : 7, 8	"웨도우박스" M. 크리스토퍼 作 전희식 기획	황정준
7	1983년 4 : 16, 17	"불萊코베디" 피터데커 作 전희식 기획	홍이식
28	1983년 6 : 20, 21	마시시피비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차세훈 기획	김영덕